

서효인의 '소설처럼'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할 일 - 클레어 키건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시기에 아이 키우는 집은 크리스마스에 무얼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한다. 무슨 선물을 해야 하나? 애가 아직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 믿든 아니든 선물은 준비해야겠지? 아이는 크리스마스 아침 선물 포장을 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산타 대신 아이의 선물을 고르는 부모의 표정도 마찬가지로 거라 믿고 싶다.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압박해지는 시기이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런 사정을 잠시 잊게 하는 효능이 있으니까.

에 충실한 남자다. 그는 빈주먹으로 태어났다. 아니, 빈주먹보다 못한 사정이라 해도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가사 일꾼으로 일하다 아이를 가졌고, 집에서 내쳐졌다. 하지만 윌슨 부인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필롱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유를 찾기 힘든 관대함과 사랑을 바탕으로 (그러나 어려움 속에) 성장한다. 어머니는 죽고 필롱은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한다. 그는 아내 '캐슬린'과 다섯 딸을 낳았으며, 석탄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부자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마음에 새기는 듯하다. 석탄을 배달하며, 타이어를 점검하며, 딸아이를 보살피며... 그렇게 삶을 지속하면서.

도시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반짝이고, 여우가 있다면 내 집 거실에도 자그마한 트리를 꾸며놓을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 특유의 리듬과 멜로디는 어떤지 한겨울의 체온을 조금 올려주는 것도 같다. 가족과 연인을 돌아보게 한다. 그러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기도 하고, 소원했던 주변 사람을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이렇듯 크리스마스는 어느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이끈다. 그날은 무엇이든 사랑해도 괜찮을 것만 같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상실될 수도 있음을 필롱은 안다. 당시 아일랜드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타고난 운으로 어려움을 통과하겠지만, 많은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다. 필롱은 케슬린과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을 작성한다.

필롱 앞에 등장한 수녀원의 소녀는 우연이 아닌 필롱에게 갑갑하다. 필롱이 스스로와 세상에 던져왔던 질문의 답으로서 소녀는 나타난 것이다. 실제 아일랜드 역사에서 수녀원과 결탁한 세탁소에서 은폐, 감금, 강제 노역을 당한 수많은 여성이 있다고 작가는 밝히는데, (우리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수녀원은 필롱이 속한 지역 사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필롱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소녀는 필롱에게 있어 파멸적 재앙일 수도 있다.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자상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과거를 반추한다. 누군가의 보살핌과 관용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에 올 수 있었던 과정을 되돌아본다. 이 모든 게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그는 여기는 듯하다. 무엇보다, 무엇이 되어, 무슨 연유로 삶을 살아야 할까. 어쩌면 신을 향해 있는 듯한 질문을 필롱은 자신의

그저 지나친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해 보이나 필롱은 다시 존재론적 질문을 거듭한다.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주간이고, 그의 손에는 가족을 위한 선물이 들려 있다. 필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온 세상에 사랑과 축복을 내린다는 크리스마스인데, 그 사랑과 축복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는 존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롱은 결단을 내린다. 그 결단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인다.

이 소설을 읽은 후의 크리스마스와 읽기 전의 크리스마스는 다를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처럼, 사소하지만 강렬한 그 반짝임처럼.

의료칼럼

하루 만에 끝내는 '원데이 임플란트'



김재훈
조선대학교병원
치과보철과 전임의

란트에 대한 소개를 접한 환자들은 금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뽑고 임플란트도 심고 머리 모양까지 하루 만에 다 만들어준다고? 내가 다니는 치과에서는 1년도 더 걸린다고 하던데, 하루 만에 정말 가능할까?"

그게 정말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치료하는데 무슨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치과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라는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린다. 먼저 치아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치조골 상태가 적절해야 한다. 발치할 치아 뿌리 형태와 뿌리의 위치가 임플란트 인공치근의 원통형 형태와 인공치근을 심으려는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인공치근 주위로 충분한 치조골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원 정보를 획득하는 구강 스캔, 그리고 치아와 악골 조직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방사선 CT 촬영을 시행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들 3차원 정보를 취합해 가상의 환자 악골을 재현할 수 있다. 재현된 가상의 환자 악골에 임플란트를 위치시켜 보고, 해당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수술 보조 장치(가이드 장치)를 제작해 수술실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해당 기술들의 정밀도와 해상도가 크게 향상 되고, 처리 속도도 빨라진 덕분에 치아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치아 '즉시 부하'까지도 계획해볼 수 있다.

발치할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 감염에 의해 골이식 및 임플란트가 실패할 위험성이 있으며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흡연 환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 등의 전신 질환으로 혈액순환체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으로 내복약을 복용하는 환자 또는 주사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는 외과적 시술 시 뼈의 괴사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니,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치료 계획 단계에서 주의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발치 후 임플란트 즉시 식립, 즉시 부하가 하루에 모두 이루어지는 원데이 임플란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치 후 임플란트 즉시 식립, 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 부하의 방법을 계획하면 치료 기간과 내원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특히 얇아 치료 시 비교적 단기간에 임시치아를 수복해 심미적인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 통상적인 임플란트 수복 과정에 비해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상 다소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치과의사와 상의해 개별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빠르고 정밀해진 3D 스캔 기술과 보다 정교해진 CAD/CAM 기술들이 치과 영역에 접목되면서 가이드 임플란트, 또는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으로 불리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치아와 구강 연조직의 3차

원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치과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모든 경우에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하고 추천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단계와 치료 기간을 지키며 수복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기고

고향사랑 기부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김학수
농협 중앙교육원 교수

나라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를 세액 공제 해준다. 반면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최대 30% 한도 내 담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금액이 예상보다 저조하기에 더욱 그렇다.

즉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중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하여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세액 공제 되고, 3만 원 상당의 담례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다.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기부 사례는 16만 5810건, 기부액은 191억6975만 원으로 추산됐다.

물론 고향을 사랑하고 지키자는 취지의 좋은 제도를 연말정산 절세 수단인 하나로만 인식해서 곤란하다. 그러지 않아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올해 야심차

지역별로는 경북 도내 지자체들이 모두 39억 2438만여 원을 모금해 기부액 기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경남은 35억 3717만여 원이고 강원도는 25억 2118만여 원, 충남 20억 7442만여 원, 충북 16억 5835만여 원 등의 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0%에 이르는 50여 곳이 모금 실적의 공개 자체를 꺼리고 있을 정도로 모금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떠나 우리 모두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연말이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 해보자. 세제혜택은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 나의 기부금이 쓰여 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뜻깊은 연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社說

뒤늦은 선거구 획정 초안에 입지자들 혼란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초안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그제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면서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해 마련했다.

어느 것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내에서 인구수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인 반면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렸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8곳과 10곳으로 지역구 수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전남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공중 분해돼 영암이 해남·완도·진도에 묶이고, 무안은 나주·화순에, 신안은 목포에 편입됐다. 동부권에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로 2개이던 선거구가 순천이 분리돼 갑과 을로 나뉘고, 광양·곡성·구례로 조정됐다. 전남 서부권에서 1곳이 줄어든 반면 동부권에서 1곳이 늘

선거구 획정은 철저히 인구수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한다. 전남 선거구 조정은 인구 면에서 서부권의 쇠퇴와 동부권의 도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공중 분해로 선거를 준비해 온 입지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선거구가 사라지게 돼 '멘붕'에 빠지게 됐다.

이번 획정안은 국회 정계특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인구수만 기준으로 하면서 나타나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차제에 개선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점처럼 총선 40여 일을 앞두고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채 양·곡성·구례 갑과 을로 2개이던 선거구가 순천이 분리돼 갑과 을로 나뉘고, 광양·곡성·구례로 조정됐다. 전남 서부권에서 1곳이 줄어든 반면 동부권에서 1곳이 늘

전남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초동 대처가 최선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지역을 찾아왔다. 수년간의 방역 경험에서 볼 때 일단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 상황이 어려워지는 만큼,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초동 대처에 나서야 한다.

육용 오리 농장 반경 10km 내에는 가금농장 47곳에서 256만 마리의 닭과 오리 키우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제 고흥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데 이어 무안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도 AI 항원(H5형)이 검출됐다. 고흥 육용 오리 농장은 울겨울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사례다. 무안군 육용 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하루 이틀 후 나올 예정이지만 확진 가능성이 커서 지역민의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축조기 색소를 위해 전체 오리농장 219호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일제 검사항 예정이다. 또 과거 다발 지역인 나주, 영암, 무안, 함평, 고흥, 장흥 등 6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일 2회 이상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선제조치로 고흥 육용 오리 농장과 무안 육용 오리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2만 2000 마리와 1만 6000 마리를 살처분했다. 고흥 육용 오리 농장 반경 10km 안에 다른 가금농장은 없지만, 무안

지금도 고병원성 AI 발생의 초기 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 내년 1월까지 우리나라에 겨울 철새 157만 마리가 도래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금농장 차단 방역 등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無等鼓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거대 정당 사이에서 또 한번 정치권의 실험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신당 창당은 선거 때면 되면 정치권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다. 대부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자폭된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 거대양당 정치에 그동안 신물이 난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이 중도 정당을 표방하며 신당 창당에 나서기도 했다.

서 여러 계파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당 내부가 분열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등이 창당했지만, 이마저 오래가지 못했다.

신당 창당 바람에도 최근 정치권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신당 창당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선택'이라는 신당을 각각 창당했고,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에서도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돌면서 향후 신당 간 이합집산도 예견된다. 최근 신당 창당 시 지지 여부와 관련해 '지지할 의향이 없다'와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68%와 25% 비율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당 창당이 내년 총선에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민생은 뒷전인 채 끝없는 반복과 대립만 일삼는 거대 정당이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는 모를 일이다.

도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에서도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돌면서 향후 신당 간 이합집산도 예견된다.

최근 신당 창당 시 지지 여부와 관련해 '지지할 의향이 없다'와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68%와 25% 비율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당 창당이 내년 총선에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민생은 뒷전인 채 끝없는 반복과 대립만 일삼는 거대 정당이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는 모를 일이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내선 222-491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www.kwangjuilbo.com